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1.23)

□ 제7차 WTO 각료회의

○ WTO 각료회의 개최 연혁

- 1차(싱가포르, '96.12.9~13) ⇨ 2차(제네바, '98.5.18~20) ⇨ 3차(시애틀, '99.11.30~12.3) ⇨ 4차(도하, '01.11.9~14) ⇨ 5차(칸쿰, '03.9.10~14) ⇨ 6차(홍콩, '05.12.13~18) ⇨ 7차(제네바, '09.11.30~12.2)

○ 제7차 각료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2009.11.30~12.2, 스위스 제네바
- 주제: WTO, 다자간 협상시스템(multilateral trading system), 국제 경제환경(the current global economic environment)
- 의장단: 의장(칠레), 부의장(스위스, 인도네시아, 이집트)
- 참석자: 153개 회원국, 옵저버 및 국제기구
- 구성: 본회의 및 실무회의
- 여타회의: 각 협상그룹별 각료회의(G-10, G-33, G-20 등), GSTP 각료회의, 제반 양자회의 등

○ 주요 의제

가. 본회의(Plenary Session)

- 각료 결정사항: TRIPS 비위반제소,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등
- 제8차 각료회의 일시 및 장소, 의장단 선출
 - * 잠정안: 2011년 11월, 제네바, 주최국 통상장관(의장)

나. 실무회의(Working Session)

- 1일차: DDA협상 포함 WTO 활동 점검
 - 효율성, 투명성, 포괄성 등

- 의사결정, 분쟁해결, 협상지원, 보호주의 대응 기술지원 등
- 2일차: 경기회복,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WTO 기여
 - G-20 정상회의 공조, 보호주의 모니터링, Trade Financing, Aid for Trade, 신 의제(환경, 노동 등)

○ 특징과 전망

-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4년만에 개최
 - * WTO 설립협정(4조)은 최소 2년중 1회 정례각료회의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나, DDA 협상에 집중하면서 2007년에는 정례각료회의의 미개최
- 기존의 각료회의보다 소규모로 개최
 - * DDA 협상과 분리하여 개최되는 정례적인 각료회의
 - * 일반이사회 의장은 대표단 규모를 홍콩각료회의 대비 1/3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
- DDA 협상 현황 점검 및 진전 방안 논의

□ DDA 협상 개요

○ 협상 의제

- 9개 분야: 농산물, 비농산물(공산품, 임·수산물), 서비스, 무역규범, 무역원활화, 환경, 지적재산권, 개발, 분쟁해결

○ 협상원칙: 일괄타결(Single Undertaking)

- * "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."

○ 협상 절차

- 상품: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합의 → 양허안 검증 → 최종합의
- 서비스: 부문별 개방요청 → 부문별 개방계획 제시 → 양자협상 → 최종합의
- 규범: 협정문 개정 협상 → 최종합의

□ 농업 분야 쟁점사항 (2008. 7월 잠정타협안)

○ 시장접근: 일반 관세 감축

선진국		개도국	
현재 관세수준	감축폭	현재 관세수준	감축폭
0~20%	50%	0~30%	33%
20~50%	57%	30~80%	38%
50~75%	64%	80~130%	43%
75%+	70%	130%+	47%

- 신축성: 민감품목(SeP), 특별품목(SP), 특혜잠식
- 기타: 특별긴급감세(SSG), 개도국 긴급수입관세(SSM), TRQ관리, 관세 단순화

○ 국내보조

• 무역왜곡보조총액(OTDS)

구간	감축률	이행기간	개도국
1구간(EU))	80%	첫날 총 OTDS의 33.3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• 선진국(3구간)의 2/3: 36.7% • 첫날 총 OTDS의 20% 감축,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
2구간(미국, 일본)	70%		
3구간(기타 국가)	55%	첫날 총 OTDS의 2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

• 감축대상보조(AMS)

구간	감축률	이행기간	개도국
1구간(EU))	70%	첫날 총 AMS의 2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• 선진국(3구간)의 2/3: 30% • 첫날 총 AMS의 3.3% 감축,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
2구간(미국, 일본)	60%		
3구간(기타 국가)	45%	첫날 총 AMS의 75% 감축,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	

• Blue Box,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

○ 수출보조

- 선진국은 2013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하되, 2010년까지 50%, 나머지는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철폐
-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, 농업협정 제 9.4조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 후 5년간 마케팅 비용, 운송비용 등의 수출보조는 유지 가능
- 수출신용, 수출국영무역, 수출제한, 식량원조 규율 강화

○ 잔여 쟁점사항

- 개도국 수입관세
- 면화, Blue Box, 관세단순화, 관세상한, 열대작물, 특혜잡식 등

□ 최근 동향과 전망

○ 2009년 동향

- 상반기 중 개최된 주요 정치 회합에서 DDA 조기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
 - * 다보스, OECD 각료이사회, APEC 통상장관회의 등
- G8 확대정상회의(라쿰라, 7.9):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 설정
-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(뉴델리, 9.3~4): 금년말까지의 협상계획(로드맵) 도출, 본격적 협상 재개 계기 마련
- 제3차 G20 정상회의(피츠버그, 9.24~25): 2010년 DDA 협상 타결목표 확인, 2010년초 각료회의를 개최, 협상 진전상황 점검
- 제네바 프로세스 재가동, 금년말까지 고위급 회의와 협상 분야별 회의 개최 → 분야별 잔여 쟁점과 기술적 사항 논의를 통해 협상의 실질적 진전 도출 목표
- 양자 및 복수국간 협의 병행: 미·인도, 미·브라질간 양자 협의 개최, EU 주도의 복수국간 협의(G-15) 개최

○ 주요쟁점 1: Sequencing 문제

- 개도국들은 Sequence에 따라 우선적으로 농업/NAMA 자유화 세부 원칙 타결 추진 * NAMA(Nonagricultural Market Access)
- 선진국들은 서비스 등 다른 협상 분야의 진전을 위한 Sequence의 신속적 적용 주장

○ 주요쟁점 2: 양자 vs 다자 협상

- 미국은 2008.5월부터 협상 결과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양자·복수국간 협의 필요성 강조
- 개도국들은 초기에 반발하였으나, 점차 다자협상 프로세스의 우선성을

전제로 수용

- 미국은 중국, 인도, 브라질 등과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나 아직 성과는 불확실

○ 주요쟁점 3: “No Surprise” 원칙

- 농업·NAMA 양허안 작성 과정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도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(2009.7.24 라미 사무총장 TNC 언급)
- 선진국·개도국이 자국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석

□ **협상 전망**

○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

- 2010년 초까지 농업·NAMA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 도출 필요
- 제네바 고위급 회의 및 분야별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 중요

○ 쟁점사항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차 담보

- 농업(SSM 등)과 비농산물(분야별 자유화 등) 주요 쟁점에 대한 선진국·개도국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 전망 낙관이 어려운 상황

○ 주요 변수

-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력 집중 여부
- 주요 선거일정: 2010년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와 브라질 대선 등 감안

□ **우리의 대응 방향**

○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수혜국으로 다자 협상에 적극 참여

- 1967년 GATT 가입 이래, GDP 규모 세계 13위 국가로 발전
- DDA 협상 타결의 경제적 효과: 전세계 수출은 1,780억불, GDP는 3,004억불 증가 예상

○ 내년 G20 의장국 지위를 활용, DDA 협상 조기타결과 다자무역체제

강화에 적극 기여

- 한국은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 주최국

○ 분야별 대응 방향

- 농업: 농산물 민감성 보호, 취약품목 보호장치 마련
- NAMA: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세 감축(수출시장 확대)
- 서비스: 해운, 금융, 통신, 건설, 유통 등 5대 핵심 인프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타 회원국의 개방 확보
- 규범: 반덤핑 조치 규율 강화를 통해 남용의 최소화, 수산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를 통해 우리 어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